

숭대극회 제19회 신입생 환영공연

원작 : 이강백
기획 : 양명호
연출 : 정석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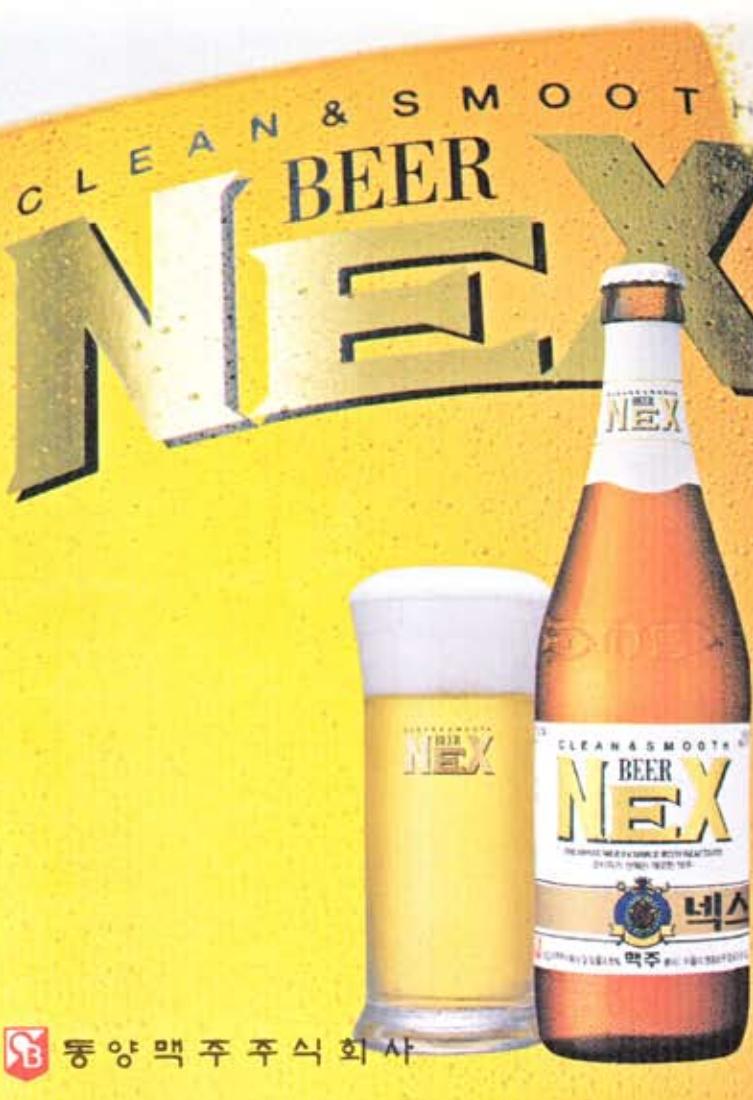
일시 : 95년 3월 9 · 10(18시) 11일(14. 17시)
장소 : 숭실대학교 대학극장
주최 : 숭실대학교 숭대극회
후원 : (주)동양맥주 일신방직주식회사 (주)조선맥주



소비자가 선택한
깨끗한 맥주
넥스

넥스에 쏟아지는 찬사! 소비자 여러분의 것입니다

역시 소비자가 선택해주신 맥주는 달랐습니다.
출시되자마자 쏟아지는 넥스에 대한 한결같은 찬사와 격려—
가장 맛있는 맥주 맛을 알고, 바로 이맛을 평가해주신 분은
소비자 여러분이셨습니다.
넥스는 소비자 여러분의 맥주입니다.



글 | 는 시 모



극회장 / 류 성 환 (건축'93)

길 길고도 지리한 하루

우린 아침을 맞이한다. 마치 무척이나 바쁜듯한 ??
서로를 원수인냥 눈치보며 시선을 돌리는 지하철 안에서 우린 숨소리를
죽인다.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으로 살아가고 무엇때문에 살아가는가.
우리 승대극회인들은 미친듯 무대에 선다.
왜 서는지도 모른체……

삶을 볼 수 있으려나 미래를 볼 수 있으려나 자그마한 기대감으로 점점 조명에 우리의 마음을 몰아본다.

기나긴 30년을 이어온 우리 승대극회 한쪽벽에 다시 한번 작은 포스터 하나를 더 한다.

우린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모두 힘을 냅시다. 저희 승대극회를 사랑하시고 관심가져 주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의 미친 몫짓을 소개하렵니다.



동양맥주주식회사



연출 / 정석용 (경영'90)

I 강백의 <봄날>은 표면적으로, 회춘과 「웃방아기」의 동녀풍속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엮어간다. 동녀풍속이란 나이 50이 넘은 노인이 童男童女를 품고 잠으로써 그 몸에서 발산하는 사람을 장수케하는 신비의 기운을 흡수하는 人氣接補의 민속을 지칭하는데, 음심을 품으면 회춘효과가 사라졌다 한다. 한국 전통 의약관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바 있는 <本草綱目>에 의하면 노부모에게 효도하는 한 방법으로 童男童女를 물색, 청침시키는 이 습관이 일제 때까지도 있었다는데, 이를 「웃방드린다」라고, 그 동남동녀를 「웃방아기」라 한다.

II

이 작품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식들은 전횡적인 독재자인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항상 불만을 토로한다. 그 중에서도 차남은 잠재심리 속에서 작용하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을 촉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아버지와 자식들 사이에 어머니를 대신하는 장남이 있다. 장남은 독재적인 아버지와 그에 불만하는 자식들 사이에서, 바탕은 자식들 편이지만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세된 남성, 아니 모성적 남성의 역할을 맡아한다. 약한 막내는 백운사 스님들이 맡겨놓고간 계집아이의 출현으로 막내는 병이 낫는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웃방아기」로 삼는다고 선언하면서, 아버지와 막내의 갈등은 심각해진다. 이처럼 아버지와 차남을 중심한 사남까지의 자식들이 벌이는 갈등적 상황은 막내와 아버지의 갈등으로 인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마침내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이 작품에서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는 「구렁이」를 살아서 먹이고 송진을 얼굴에 발라주기에 이른다. 이 계략으로 아버지의 돈을 갖자 나눠가지고 제 갈길을 떠난다.

III

이 작품은 우화적 수법을 통해 정치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고 보아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통치세력(아버지)과 전략과 전술을 발휘하여 자신들에게 돌아올 소유를 아니 그 이상을 탈취하는 저항세력(자식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가급적이면 평화적으로, 순리적으로 중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중간집단적 기능(장남), 자신이 막연히 바라던 관념적인 대상이 구체화되자 잠시 기뻐하다가 절대적인 권력에게 이를 탈취당한 후 여전히 가슴만 태우는 소시민적 존재(막내),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기 보다는 「그냥 가만 있어도」 마음이 알만한 것은 다 말게 해 주리라는 종교적 기대속에 객체적 생존을

IV 켜가다가 혁명적 변화의 우연적 결실(행복한 결혼생활)을 수확하는 순응적 존재(동녀) 이렇게 보면 이 극은 정치극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극에 나오는 노래, 그림, 속요, 산문, 樂典, 편지 같은 서사극적 요소들이 본래의 서사극적 기법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활용됨에 따라서 이 희곡은 그것이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정치극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말았다. 작가는 이러한 삽입요소들을 「동녀풍속이 갖고 있는 설화적 요소를 좀 더 실제적으로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서」 구사했다고 말한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서사극이 아니라, 하나의 낭만주의 연극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사극적 기법이라고 통칭한 「범상한 것을 비상하게 만드는 기법」 브레히트식으로 표현해서, 「소격 효과」를 노리는 기법이 여기에서는 낭만주의 예술의 특징인 「쾌적한 방식으로 의아하게, 즉 어떤 대상을 낯설게 하면서도 실상은 잘 알려지고 매력이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구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서사극적 요소를 가미한 낭만적 정치극」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IV. 서사극에 대하여

서사극은 브레히트(Bertolt Brecht)가 창시한 연극으로 反아리스토텔레스적 연극이라고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극의 목적을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대해 서사극파는 정면으로 반대한다. 正統의 연극에서는 관객과 극중인물과의 감정교류 내지는 공감을 그 생명으로 한다. 극중인물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요 그의 술품은 나의 술품이라는 것이 정통적 연극이 바라보는 관극 태도다. 그러나 서사극에서는 무대에서의 사건이나 인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하나의 시범에 불과하다고 본다. 서사극이 바라는 것은 카타르시스를 통해 우리의 정신을 淨化하고 스스로 승화된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냉철한 관찰을 통해 판단력을 부여하는데 있다고 본다. 이성적 판단을 위해서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된다. 관객은 마치 병환에 시든 환자의 몸을 수술하는 외과의처럼, 냉정해야 한다고 본다. 연극이란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를 사회적 병폐를 무대위에 전개시키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냉정한 판단력을 관객 각자가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다.

“작가 이강백은 주로 우화적인 작품을 많이 쓰는 작가로 「호모세파라투스」 「쥬라기의 사람들」 「북어대가리」 「족보」 등 다수를 썼다.”



기획 / 양 명호 (법'93)

고

독하다 말하고 싶지 않다.
방황이라 부르고 싶지 않다.

그렇고 그런 것이 사는 것이라 말하고 싶지 않다.
내게 주어진 뜻은 반드시 이루어 내리라!
홀로서기의 아픔이란 것은 스스로 부디쳐 이겨내야 하는 것이기에…….
라면 한끼로도 험한 세상의 꼭대기에 우뚝 선 극회인들이여!
그대들에게 아낌없는 축복의 기도를 주련다.
공연을 위해 도와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하나님과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린커플



Tel. 816-5196

대림스넥

강남시장의 명소!

Tel. 817-9405

호프·경양식
男子 男子



Tel. 816-7337

경양식 & 호프전문점

#9 DREAM



Tel. 812-5768

자매분식



Tel. 816-9835

여.우.사.이

이기서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자



Tel. 815-8694



코드
RESTAURANT



Tel. 812-4361

Coffee Shop
All Green



Tel. 815-7965

모카하우스



Tel. 812-4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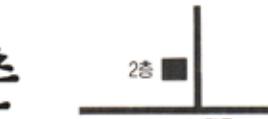
지희네 집



지희네 집 ■
●송실대

정통 중국요리 전문점
(CHINESE RESTAURANT)

연래춘



연래춘 ■
●정문

Tel. 812-9108



무대감독/임경화(화학'87)



무대장치/박원상(동문'88)



무대미술/소장호(전산'89)



조명/장빈(정통'94)



음향/임가영(불리'94)



홍보/양현준(법'90)



분장/김수정(국문'83)



소품/현승욱(불문'90)



일러스트/손미라(사사'93)



의상/송숙희(영문'92)



setProperty/류은숙(산공'92)



진행/김은성(정통'92)



진행/박시현(법'94)



진행/류민주(국문'94)



진행/이지연(불리'94)

이정원(국문'93)
/아버지봄.
이자랑이.
추억.
노래.김상겸(전자'91)
/장남옆에 있는 이의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한석윤(기계'91)
/차남, 스님1어울없이 지는 꽃은
가는 불인데
어울없이 오는 비에
봄은 울어야.정대교(불문'94)
/삼남스님2이제서야
난
깃발을 꽂았다.양명호(법'93)
/사남, 스님3먼 훗날
아 봄날이 그리워질 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슬픔을 무엇으로
노래하려나류성환(건축'93)
/막내

난, 동녀가 좋아요.

서수경(정통'94)
/동녀동녀의 느낌표 (!)
사랑,
어땠는지…….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921년 6.13	연희회인극 "침례영웅 나를레옹의 말로" "대비극 노예의 탐"		
	1923년 7.7, 21	전광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심 난 후" "기폐인간" 펜肮창년회 주관		
	1923년 7.28, 29	"소년연극" 교학생후원회 주관		
1	1965년 11.	"죽궁으로 돌아온다" 황석생作	이 반	전진호
2	1968년 10.28	"Out Town" by Thom Wilder		이태주
3	1969년 10.10	"화자들" 이호례스모作		이태주
4	1969년 10.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5	1970년 5.15	"정통의 죽음"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6	1970년 10.28, 29	"승부의 終來" 사무엘 베카드作		김양기
7	1971년 5.26, 27, 28, 31 6.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간님목 심판" 출조병作 "담배해독에 헌하여" 안모 쇄작 "황금단지" (로마극) 푸리우디스作 "고도의 기나긴여" 사무엘 베카드作		정종화
8	1971년 11.4, 5, 11	"죄악영의 그림자" 산 호페이사作		차현재
9	1972년 5.21, 22, 23	"출입과티" H.린더作		한영재
10	1973년 15.21, 22, 23	"미시시피의 결혼" F.위렌아트作		고봉인
11	1973년 10.25, 26, 27	"방" H.린더作 "기도"(소극장) F.아리발작		김득남
12	1974년 5. 25, 28, 30	"정의의 사랑들" (전5막) A.까파작		정종화
13	1975년 6.9, 10, 12, 13	"파울터의 산책" "도스토예프스끼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안홍순
14	1975년 10.29, 30, 31	"미녀만과 병회법" Max. Fishoff作	김기열	안홍순
15	1976년 6.1, 2, 3	"인티류" 창 클로드 빈 이펠러作	김기남	김득남
16	1976년 10.25, 26, 27, 28	"행" 창 클로드 빈 이펠러作		김영덕
17	1977년 6.15, 16, 17, 18	"EQUUS" 피터 웨퍼作	박정식	김영덕
18	1977년 10.10, 11, 12, 13	"EQUUS" 피터 웨퍼作	방영철	김영덕
19	1978년 6.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作	방영철	김영덕
20	1978년 10.24	"EQUUS" (대학연극 연극제 참가) 피터 웨퍼作	민승기	김영덕
21	1979년 6.18, 19	"한강 2979" 김영덕作		이별국
22	1979년 9.29, 10.2	"초본" 오재석作	이정일	황창순
23	1980년 11.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 가?" 브라이언 클라크作	엄세범	박상진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24	1981년 6.12, 13	"노부인의 방문" F.위렌아트作	이종규	황경순
25	1981년 11.12, 13, 14	"달맞이꽃" 김병종作	한석규	황경순
26	1982년 5.12, 13	"마리끌라" A.까파作	유태홍	계숙
27	1983년 10.7, 8	"해도우 박스" M.크리스토fer作	전희식	황경순
28	1983년 6.20, 21	"미사시피의 결혼" F.위렌아트作	김영덕	
29	1983년 10.7, 8	"트레이" John Bowne作	이원우	오정열
30	1984년 5.24, 25, 26	"도가니" (Teh crucible) A. Miller作	이종규 엄세범	오세환
31	1984년 10.11, 12, 13	"면전요" John stoltenberg作	최세훈	이용섭
32	1985년 5.9, 10, 11	"친밀굴" Maxim Gorky作	김상현	이용섭
33	1985년 11.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파리스키	최승민	송기범
34	1986년 6.4, 5, 6	"에쿠우스" "EQUUS" 피터 웨퍼作	최성우	최승민
35	1986년 9.11, 12, 13	"코랄소" F.이오네스코作	한상준	송기범
36	1987년 6.3, 4, 5	"한여름밤의 꿈" W. Shakespeare	권형진 이준석	오정열
37	1987년 9.10, 12, 13	"오래" A. Camus作		박경근
38	1988년 6.2, 3, 4	"애인은 끓게 새연은 길게" 이어령作	이종실	오정열
39	1988년 10.6, 7, 8	"안내려? 봇내려!" Dario Fo作	권태수	송근호
40	1989년 5.25, 26, 27	"놀녀" 윤조평作	전승범	안선후
41	1989년 10.10, 17, 18	"대설날의 살인" T.S.Eliot作	오정열	이 반
42	1990년 5.24, 25, 26	"안되고네" 정 아누이作	권태수	이준석
43	1990년 8.30, 9.1, 2	"한여연대기" 홍석일作	전승범	이영민
44	1991년 5.30, 31, 6.1	"생일과티" H.린더作	남재우	권승해
45	1991년 9.5, 6, 7	"남개" 이상作	양현준	권형진
46	1992년 3.19, 20, 21	"주민 나발을 들었다" 김상현作	임경화 정현용	홍운영
47	1992년 9.17, 18, 19	"글론의 예수" 김지하作	홍석환	송근호
48	1993년 5.20, 21, 22	"에일즈맨의 죽음" A. Miller	황명식	박원상
49	1993년 10.21, 22, 23	"택시, 택시" 김상수作	소장호 이명선	박원상
50	1994년 5.26, 27, 28	"굿닥터" 남시아면 作	정식율	소장호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73년 3.10, 11, 12	"아마존 봄" W.Aning作		김홍수
2	1976년 10.25, 30, 31	"보석과 여인" 미강태作		김득남
3	1977년 3.16, 17, 18	"출발" 들판설작		전경호 안홍순
4	1979년 3.29, 30	"꽃" 이경태作		한 철 정재호
5	1981년 3.30, 31	"ARIA DA CAPO" E.St. V. Millay作	이영환	오세환
6	1982년 3. 24, 25	"임금님 귀는 달나귀 귀" 김용락作	최시영	이용실
7	1983년 4.16	"플랫코너" 피터 웨퍼作	전희식	홍석환
8	1984년 3.8, 9	"개인의 소공간" N.Holland作	차세훈	김인보
9	1985년 7.20	"ARIA DA CAPO" E.S. V.Millay作	이영민	화승민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0	1986년 3.17, 18, 19	"인형의 집" 원리 일센作	위길영	김정은 위성선
11	1987년 5.12, 13, 14	"더러운 손" J.P. 시프트로작	백은현	박경근
12	1988년 3.24, 25, 26	"불가불가" 이현화作	전승범	황금실
13	1989년 3.23, 24, 25	"죽인수녀를 위한 진혼곡" A.Camus作	홍덕태	박경근
14	1990년 3.8, 9, 10	"우울증 환자" Béoch Strauß-β	이영민	박혜숙 한설준 백로라
15	1991년 3.7, 8, 9	"노크노크" 출스파이퍼작	정현용	이민준
16	1992년 5.28, 29, 30	"꿈먹고 꿈마시고" 이근실작	김상경	양현준
17	1993년 3.11, 12, 13	"페트사" Georg Kaiser作	소장호	박원상
18	1994년 3.10, 11, 12	"어린왕자" 생텍쥐페리작	이명선	홍석환
19	1995년 3. 9, 10, 11	"봄날" 이강백작	임병호	장석웅

승대극회 제51회 신입생 환영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후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숭실대학교 승대극회 동문회 일동



하이트의 다짐

3년 연속 히트 상품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히트 상품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첫째는 좋은 제품, 둘째는 고객 여러분의 사랑.

올해도 깨끗한 물, 깨끗한 맛으로
3년 연속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